

'26. 9. 4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태

- '폭탄 메일'에 특공대·EOD까지...허위 협박에 반복되는 '공권력 소모'
 - 8.27 언론은 전국 법원에 폭발물 설치를 주장하는 허위 협박 메일이 잇따랐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, 이로 인해 경찰 특공대·탐지견 등이 대거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 보도
 - ※ 언론은 경찰이 최근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 협박으로 소모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고 부언
- 日 경찰, 해외첩보 수집 강화...전국 경찰관엔 보디캠
 - 8.27 언론은 일본 경찰청이 간첩 사건이나 테러 등의 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일본판 중앙정보국(CIA)인 '외사정보국'을 신설해 북한·중국·러시아 등 외국에 관한 정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※ 또한 단독으로 공격을 하는 이른바 '외로운 늑대'의 테러 행위를 분석하는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언
- 드론 테러 위협 현실화에 항공업계 대응체계 강화 총력
 - 8.28 언론은 러·우 전쟁 이후 드론이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대상 드론 테러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어, 국내외 항공업계와 당국이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이번 을지훈련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계기관 합동 드론테러 대응훈련을 실시, 방위사업청도 레이더·요격드론 등을 결합한 방어체계 개발에 착수했다고 부언
- 외교부,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'여행금지' 단계 발령
 - 8.31 언론은 외교부가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테러가 잇따르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여행경보* 최고단계인 '여행금지'를 발령하고 현지 체류 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고 보도

중 동

○ 헤즈볼라, “무장해제 합의 폐기하라…항복하지 않을 것”

- 8.28 언론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 합의를 거부하며 “항복하지 않겠다”며 “기본합의는 정당성이 없고 불법적이며 굴욕적이고 레바논의 주권을 파괴한다”고 주장했다 보도

※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헤즈볼라는 전쟁에 참전했으며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습해 레바논에서 4,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부언

미 주

○ 美, 9·11 테러 주모자 20년 법정 공방 끝에 '28년 6월 군사재판 시작

- 8.27 외신은 9·11 테러 주모자 「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」의 군사재판이 20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'28년 6월 시작될 예정이며, CIA 고문 관련 증거능력 문제와 사형 면제 합의 등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보도

○ 美 재무부, 유럽 기반 3개 단체 대테러 제재·미국 내 자산 동결

- 8.28 언론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(OFAC)이 폭력적 극좌세력, 테러단체와 연계된 이탈리아·영국·초국적 단체* 3곳을 대테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를 금지했다고 보도

* [제재 대상] 이탈리아 「아우티스티치 인벤테티」 (극좌단체 디지털 서비스 지원) / 영국 「팔레스타인 액션」 (방위산업 시설 훼손) / 초국적 「미사르 바딜」 (PFLP 연계)

○ 美 하원정보위, “테러 고도화...AI '블랙스완' 위험 대비해야

- 9.1 언론은 美하원 정보위원회가 CIA 등 美 정보기관들을 향해 인공지능 기술이 테러리스트나 적대국에 의해 치명적인 무기 개발에 악용 될 수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'블랙스완' 위험에 대비 할 것을 촉구

↳ Black Swan : 예측 불가능한 극단적인 사건

역사속 테러사건

러시아 부이나크스크(Buynaksk) 아파트 폭탄테러

- '99.9.4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의 군사 주둔 도시인 부이나크스크(Buynaksk)內 러시아 군인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외곽에서 폭약을 실은 트럭이 폭발, 64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
 - 이후 군 당국이 몇시간 뒤 병원 근처에 주차된 폭탄 트럭을 미리 발견하여 폭발 15분전 해체하면서 추가 피해 방지
- 부이나크스크 사건은 단발성 테러가 아닌 약 2주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연쇄 폭탄 테러의 시작점으로, 이후 모스크바·볼고돈스크에 있는 3개 아파트 단지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,000명 이상이 부상
-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의 배후로 체첸 무장 세력을 지목하였고, 당시 다게스탄 공화국을 침공하여 러시아군과 충돌 중이었던 이유로 국민들의 반(反)체첸 여론이 집결되어 제2차 체첸 전쟁의 도화선이 됨

테러 상식

< 차량폭탄테러(Car Bomb)의 유형 >

- VBIED(Vehicle-Borne Improvised Explosive Device, **차량 탑재 급조폭발물**)
 - 차량에 사제 폭약을 가득 실어 이동식 무기로 사용하는 테러전술
 - 대형 트럭 활용 시 건물을 완파시킬 만큼 강력하며, 소프트 타겟으로 은밀 침투가 가능하여 테러 단체가 선호
- SVBIED(Suicide VBIED, **자살 차량 폭탄 테러**)
 - VBIED에 자살 테러리스트가 탑승하여 목표물로 직접 돌진하는 테러전술
 - 인위적인 운전이 가능해 방어벽을 피해 정밀타격이 가능하며, 최근 철판을 장갑처럼 덧댄 형태도 등장
- UVIED(Under-Vehicle Improvised Explosive Device, **차량 하부 부착형 폭탄**)
 - 특정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차량 밑바닥이나 바퀴 인쪽에 소형폭탄 등을 몰래 부착하는 테러전술
 - 시동이나 배기열, 특정 속도에 맞추어 터지도록 정밀 설계가 가능